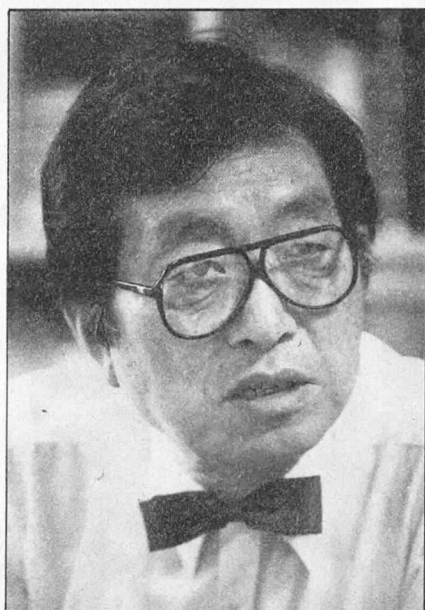


원형사관으로 본 두 민족의 대조

「한국인과 유태인」

金容雲
한양대 대학원장

유라시아대륙의 극동과 극서에서
서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한국인과 유태인의 원형을
비교고찰함으로써 세계 속의
한국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민족의 심성에는 변치 않는 부분, 곧 '원형'이 있다. 그 이론적 배경에는 칼 융의 집합적 무의식, 또는 불교적인 '一即多 多即一'의 사상과, 수학에서의 '후락탈이론'이 있다. 필자는 이미 그것을 비교의 척도로 삼아 「한일민족의 원형」, 「일본의 몰락」 등을 저술, 원형과 시대상황과의 긴장관계에서 민족적인 역사체험을 관찰하고, 특히 민족흥망의 구조와 미래를 전망한 바 있다.

예컨대, 대국이었던 로마, 이집트, 중국의 元·淸 등은 멸망했어도, 오히려 그들로부터 정복당한 바 있는 유태인과 한국인은 여전히 수천년 동안 민족적인 일체성(Identity)을 유지하고 있다. 전자는 문명의 '극'에서 스스로 자신의 원형을 상실했으나, 후자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원형을 고수하여 생존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원형사관을 확립했다. 한민족과 유태민족은 유라시아대륙의 극동과 극서의 대극적인 지리적 위치에서 농경민과 유목민이라는 대조적인 생활을 하며 독자 원형 위에 고유의 문화를 고수해 왔다. 오늘의 시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전제하면서 한국인과 유태인을 비교, 고찰하는 책을 필자가 준비하고 있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유태인들은 2천년 동안이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으면서도 다시 고국땅을 찾아 나라를 세웠지만, 우리는 남북한이 한반도에 같이 살면서도 겨우 45년의 분단세월만으로 통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태인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생각해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세계유태인회의'에서는 어떠한 사상과 종파도 초월하고 오로지 유태인의 권익만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들은 2천년만에 민족적 통일체를 구성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는 엉뚱하게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혹은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대유혈의 참사를 경험했던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세계의 국제화 추세에 있다. 인류사는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그리고 정보사회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그 흐름을 거스를 때 어김없이 큰 고난을 겪게 된다. 19세기말 한국은 근대화(공업화)의 물결에 빈약한 농업체제로 맞섬으로써 좌절하였고, 식민지화의 쓰라림을 체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태인은 2천년간의 유랑체험으로 일찍이 초국가적 감각이 천성처럼 되어 있다. 세계사를 변혁시킨 혁명이나 전쟁, 신대륙 발견에는 어김없이 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유태인의 뛰어난 국제감각과 초국가적인 활동은 경제의 국제화와 국가간의 이익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을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국제화, 정보화시대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지혜를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세번째 이유는 한국인과 유태인의 공통점인 교육열에 있다. 특히, 한국인의 교육열은 맹목적이고 때로는 종교적인 열정마저 방불케 한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세계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 없었다. 유태인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인물을 배출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그 원인을 캐물어야만 한다.

이처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한국인과 유태인의 원형을 비교, 고찰하여 세계속의 한국의 가능성을 추구해보고자 하는 것이 「원형사관으로 본 한국인과 유태인」이 목표로 삼고 있는 바이다.

일곱 산 속의 서른아홉 자식들

희곡 「칠산리」

李康白
극작가

희곡 「칠산리」는 토벌대에게 쫓긴
빨치산이 남겨놓고 간 서른아홉명의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구상이 제대로 무르익는다면
올 가을엔 무대에 올려질 것이다.



요즈음 나는 「칠산리」라는 희곡을 구상중에 있다. 칠산리라면 이름 그대로 산이 일곱이나 둘러싸고 있는 마을로서, 그런 이름의 마을들을 우리나라 산악지방에 가면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산에 얽힌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다. 전설이라든가 민담의 대부분이 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산을 주제로 삼은 그림도 많이 보았다. 어디에나 흔히 걸어둔 동양화에 산은 빠짐없이 그려져 있었다. 그러한 이야기와 그림은 산이 이 세상의 이상향으로서, 고통과 슬픔이 없고 언제나 평화와 기쁨만이 넘치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시절에 읽었던 「정감록」에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산들을 관상보듯 하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두었는데, 대부분의 산들이 흉악한 범죄자의 인상을 하고 있는 탓인지 처참한 난리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어느 산에는 시체가 쌓이고 쌓여서 산봉우리보다 더 높을 것이라든지, 어느 산과 어느 산 사이에는 인적이 툭 그쳐서 사람 그림자를 볼 수 없게 된단든지, 또 어느 산은 난리를 피해서 숨으면 삶을 보존하리라는 등, 인간의 생과 사가 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래서 어른이 된 후에도 산을 바라보면 어린 시절 듣고 보았던 전설과 그림들, 그리고 그 난리난다는 책이 함께 떠오르곤 한다. 낙원으로서의 산, 시체가 꼭대기까지 쌓여질 산,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산, 그러한 산들이 내 마음 속에 묘하게 뒤섞여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산들을 배경으로 희곡을 써보자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했었다. 그러나 희곡이란 구체적인 사건이 필요하므로, 산과

관계되는 자료라든가 인물들에 관심을 두어왔다. 그런데 칠산리 같은 험한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동네에 가면 오래 듣는 이야기가 육이오 난리 때 빨치산에 관한 것이었다. 주민들 말에 의하면 빨치산은 평지 쪽에서의 싸움이 불리해지자 산으로 들어왔는데 토벌대가 그들을 모두 사로잡거나 죽인 후에도 자기 동네는 빨갱이 마을이라는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결혼을 할 때도, 취직을 할 때도, 이사를 갈 때도, 빨갱이가 아니냐는 의심 때문에 괴로움이 크다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빨치산이 남겨놓고 간 자식들에 대해 증오가 대단했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하질 않았다.

내가 구상중인 희곡 「칠산리」는 토벌대에게 쫓긴 빨치산이 남겨놓고 간 서른아홉명의 자식들을 등장시키고자 한다. 그들이 칠산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냐는, 앞으로 분단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리라고 본다.

「칠산리」의 계절은 늦가을이다. 겨울이 닥쳐오는 산속은 춥고 먹을 것은 없다. 마을사람들은 산속의 어린아이들을 그대로 둘 경우 모두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자기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양육할 자식들이 많다는 이유로, 빨치산의 자녀들은 기를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도 일곱 산속의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는다. 참으로 여러가지 이유가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칠산리」를 통해 보여줄 생각이다. 이 구상이 제대로 무르익는다면 올 가을엔 탈고되어 연극무대에 올려질 것이다.